

'말'[言]과 '순서를 배운다'[侖]는 두 뜻글자가 모여 한 글자를 이룬 한자말 '논'(論)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중에서도 1) 말하다[說], 2) 생각하다[思], 3) 의논하다[議] 등을 '논하다'의 기본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논함'의 이 세 가지 의미를 바탕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논리'란 그러니까 1) 말함의 이치, 2) 생각함의 이치, 3) 의논함의 이치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언어, 言語]은 생각[思考]을 밖으로 보이는, 즉 표현하는 매개요, 의논함은 여럿이서 자기 생각을 말로써 주고받음이다. 그러므로 논리란 내면적으로는 생각의 이치요, 외면적으로는 말의 이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치'란 무엇인가가 바로 그 무엇인 까닭, 무엇인가를 바로 그 무엇이게끔 해 주는 까닭을 이르는 것이니, '논리'란 말이 말이고 생각이 생

각이며, 말을 '말되게' 하고 생각을 '생각되게' 하는 까닭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논리’의 말뜻 (철학의 주요개념, 2004., 백종현)

네덜란드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은 네덜란드 개발자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만든 언어다. 그는 암스테르담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과 수학을 전공했으며, CWI(Centrum voor Wiskunde en Informatica, 국립 수학 및 컴퓨터 과학 연구기관)라는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인터프리터 언어(interpreted language)를 개선하는 일을 맡게 됐다. 그러면서 CWI는 ‘AB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팀원들과 새로 만들었다. ABC 언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4~5년이 지나자, CWI는 눈에 띠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종료시켰다. 이 과정에서 귀도 반 로섬은 같은 회사의 ‘아모에바’라는 팀으로

옮겨 마이크로 커널 기반 분산시스템 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일을 진행했다.

ABC 언어 개발과 분산시스템 연구는 파이썬을 만드는데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귀도 반 로섬은 “아모에바 프로젝트에 일하면서 하이레벨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라며 “새로운 분산환경 시스템에 맞으면서 C와 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취미활동으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파이썬(Python)’이란 영어의 의미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이름이다. 파이썬 로고에 두 개의 뱀이 서로 마주본 듯한 그림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귀도 반 로섬이 실제 ‘파이썬’이란 단어를 선택할 당시

시에는 그리스 신화를 참고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 <BBC> 방송의 코미디 프로그램인 ‘몬티 파이썬 비행 서커스(Monty Python's Flying Circus)’를 좋아해 가져온 단어였다.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귀도 반 로섬은 짧고, 특별하고, 미스터리한 느낌의 단어를 찾았다”라며 “그래서 파이썬이란 이름을 결정했다”라고 설명돼 있다.

파이썬 창시자 귀도 반 로섬 <출처: (CC BY-SA) Doc Searls at wikipedia>

귀도 반 로섬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90년 파이썬의 첫 버전을 공개했다. 처음 버전은 CWI 내 동료들이 대부분 이용했으며, 그들의 피드백을 거쳐 개선돼 왔다.

1990년 이후에는 CWI가 아닌 외부에서 파이썬에 대한 소규모 세미나와 워크샵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몇몇 기업들은 파이썬을 실제 서비스에 하나둘 도입하기 시작했다. 귀도 반 로섬은 CWI 이후 CNRI(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 비오픈닷컴, 잡코퍼레이션 등에 여러 단체와 기업에서 근무하며 파이썬만 전문적으로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파이썬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좀 더 유연하게 변경했다.

현재 파이썬은 대형 글로벌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글, 야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CERN),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이 파이썬을 이용해 서비스를 구축했다. 귀도 반 로섬은 2005년부터 아예 구글에 합류했으며, 약 7년 동안 구글에서 파이썬 관련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실제로 구글은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는 코드리뷰 도구, ‘앱 엔진’ 같은 클라우드 제품 등이 파이썬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귀도 반 로섬은 2012년 구글을 떠나 2013년부터 드롭박스(Dropbox)에 합류했다. 드롭박스에서는 현재 파이썬 언어를 개선하는 동시에 API 관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파이썬 [Python] - 간결하고 생산성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용어로 보는 IT, 이지현)